

모두미술공간  
2025.11.5.-12.4.

강내균 Kang Nae Gyoong

김재호 Kim Jae Ho

문승현 Moon Seung Hyun

문정연 Moon Jungyeon

백지은 Baek Jieun

양희성 Yang Heesung

최지현 Choi Ji Hyun

한부열 Han Booyeol

이원형  
어워드  
수상작가전

The Won Lee Award Winning Artist Exhibition

# 이원형어워드 수상작가전

“창작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창작의 과정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찾아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만든 틀을 벗어나 오롯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이원형어워드 수상작가전»은 조각가 고(故) 이원형(1946-2021)의 예술 세계를 기리며, 후배 장애예술인들의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원형 작가는 소아마비로 인한 신체적 제약 속에서도 청동과 같은 무거운 재료를 다루며,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조형적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2018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원형어워드'를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단순한 상을 수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선배 예술가가 후배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한다는 연대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원형어워드를 통해 발굴된 8인의 장애예술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며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탐구와 짐념,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쳐냅니다.

고(故) 이원형 조각가(1946-2021)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활동했지만, 고국 장애미술인의 창작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갖고 독려하기 위해 '이원형어워드'를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미술 분야 전 장르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 대상으로 공모하여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합니다. 지금까지 총 8명의 작가가 이 상에 선정되었습니다.

# The Won Lee Award Winning Artist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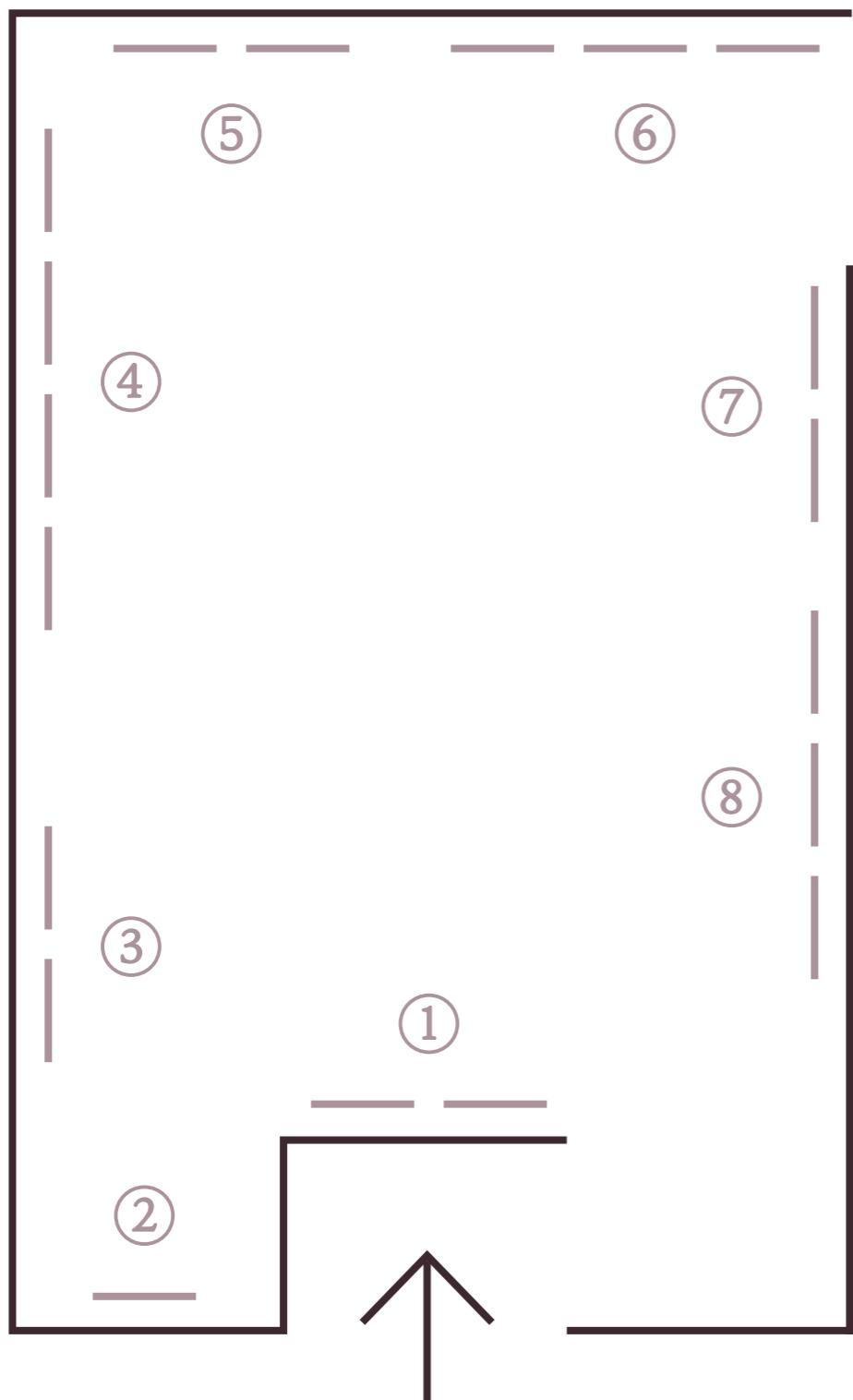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creating. During the creative process, I both find and lose myself. It is the only time in which I'm not trapped in the constructed box we are forced into.”

The Won Lee Award Winning Artist Exhibition honors the artistic vision of the late sculptor Lee Won-hyung (1946-2021) and celebrates the emerging work of his junior artists with disabilities.

Despite the physical limitations caused by polio, Lee worked with heavy materials such as bronze, seeking to capture human suffering and hope. In 2018, he established the Won Lee Award. This embodies a spirit of solidarity that goes beyond presenting an award; it reflects a senior artist's belief in and support for the potential of young artists. This exhibition showcases the works of eight disabled artists recognized through the Won Lee Award, highlighting their dedication, creative exploration, and future possibilities.

Although Lee Won-hyung immigrated to Canada and worked there, he established the Won Lee Award to continue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 creative work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in his home country. The prize is open to disabled artists across all fields of visual art, and one recipient is selected through a judging process to receive a plaque and cash award. To date, eight artists have been honored with this Award.

# 전시장 안내



제2 전시실

① 김재호

<심장에 비수를 꽂다>  
캔버스에 유채, 117×91 cm, 2016  
<보석>  
캔버스에 유채, 117×91 cm, 2017

① Kim Jae Ho

Placing a Dagger in the Heart  
Oil on canvas, 117×91 cm, 2016  
Jewelry  
Oil on canvas, 117×91 cm, 2017

② 문승현

<경계에서>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4분 44초, 2024

② Moon Seung hyun

On the Boundary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24min. 44sec, 2024

③ 양희성

<그리움>  
캔버스에 유채, 116.8×97 cm, 2020  
<자갈의 노래>  
캔버스에 유채, 130×162 cm, 2018

③ Yang Heesung

A Feeling of Longing  
Oil on canvas, 116.8×91 cm, 2020  
A Song of Pebbles  
Oil on canvas, 130×162 cm, 2018

④ 문정연

<흐름의 자유 1>  
캔버스에 아크릴릭, 90.9×72.7 cm, 2024  
<흐름의 자유 2>  
캔버스에 아크릴릭, 65.1×90.9 cm, 2024  
<흐름의 자유 3>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90.9 cm, 2024  
<흐름의 자유 5>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90.9 cm, 2024

④ Moon Jungyeon

Freedom of flow 1  
Acrylic on canvas, 90.9×72.7 cm, 2024  
Freedom of flow 2  
Acrylic on canvas, 65.1×90.9 cm, 2024  
Freedom of flow 3  
Acrylic on canvas, 72.7×90.9 cm, 2024  
Freedom of flow 5  
Acrylic on canvas, 72.7×90.9 cm, 2024

⑤ 강내균

<평창풍경>  
한지에 커피 채색, 72×110 cm, 2021  
<봄 밤>  
한지에 채색, 72×100 cm, 2024

⑤ Kang Nae Gyoон

Landscapes of Pyeongchang  
Coffee and color on Hanji, 72×110 cm, 2021  
A Night in Spring  
Color on Hanji, 72×100 cm, 2024

⑥ 백지은

<차분한 오후>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바이올렛 여성미>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비는 그쳤지만>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⑥ Baek Jieun

Calm Afternoon  
Oil on canvas, 53×40.9 cm, 2025  
Violet Feminine Beauty  
Oil on canvas, 53×40.9 cm, 2025  
It Stopped Raining  
Oil on canvas, 53×40.9 cm, 2025

⑦ 최지현

<숨을 쉬다\_호흡 1>  
한지에 혼합재료, 107×107 cm, 2024  
<숨을 쉬다\_호흡 2>  
한지에 혼합재료, 107×107 cm, 2024

⑦ Choi Ji hyun

Draw one's breath 1  
Mixed media on Hanji, 107×107 cm, 2024  
Draw one's breath 2  
Mixed media on Hanji, 107×107 cm, 2024

⑧ 한부열

<손 잡아요>  
캔버스에 아크릴릭, 61×73 cm, 2025  
<안아줘요>  
캔버스에 아크릴릭, 46×53 cm, 2025  
<함께하는 친구들>  
캔버스에 아크릴릭, 97×117 cm, 2025

⑧ Han Booyeol

Hand in Hand  
Acrylic on canvas, 61×73 cm, 2025  
Hugs  
Acrylic on canvas, 53×46 cm, 2025  
With Friends  
Acrylic on canvas, 91×117 cm, 2025

# 작품 소개



# 김재호

## 심장에 비수를 꽂다

캔버스에 유채, 117×91 cm, 2016

하트 모양의 심장에는 작은 칼이 꽂혀 있고 화려한 색의 물감들이 그 주위를 밝게 둘러쌉니다. 김재호는 타인과의 관계 속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화면을 화려한 색감으로 채우는 과정은 그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며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보석

캔버스에 유채, 117×91 cm, 2017

김재호는 굵은 선과 강한 색의 대비가 돋보이는 특유의 조형 언어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해 왔다. 어린 시절 가족을 떠나 재활원에서 자란 그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작가의 캔버스 위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팔과 다리에 집중하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긴장과 사투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다. 『물감 놀이』 (갤러리 활, 서울, 2020) 외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 Kim Jae Ho

## Placing a Dagger in the Heart

Oil on canvas, 117×91 cm, 2016

A heart-shaped form pierced by a dagger is set against a backdrop of vibrant colors. Kim Jae Ho expresses three-dimensionally the complex emotions experienced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act of filling the canvas with vivid colors becomes both a way of confronting and healing his own wounds and a means of caring for his own heart.

## Jewelry

Oil on canvas, 117×91 cm, 2017

Kim Jae Ho has developed his own artistic world through a distinctive painterly language defined by bold lines and striking color contrasts. Having left his family at a young age and grown up in a rehabilitation center, he conveys emotions that are difficult to express in words. His canvases vividly capture the tension and struggle he experiences as he relies on his arms and legs to complete each painting. He has held numerous solo exhibitions, including *Playing with Paint* (Gallery Hwal, Seoul, 2020).

## 경계에서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4분 44초, 2024

작가가 붉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비 개인 날, 군데군데 고인 물웅덩이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맨발로 한 발 한 발 디디며, 때로는 온몸을 바닥과 벽에 밀착해 봅니다. 마치 건물이 내는 소리를 들으려는 듯, 귀를 벽에 갖다 대 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김수근 건축가의 경동교회로, 무채색의 콘크리트 빌딩 사이 서 있는 독특한 벽돌 건물입니다. 화면이 교회의 안으로 전환되면 다른 경계를 넘어온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하고 후광이 비치는 십자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가는 그 앞에 멈춰 섭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침묵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가 건물의 구조를 따라 흘러갑니다.

문승현은 회화, 안무,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몸과 이를 둘러싼 물질적 환경 구조, 특히 도시와 건축에 대한 작업을 선보인다. 전시 기획과 공연 연출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단체 '옐로우 닷 컴퍼니'와 '선사랑 드로잉회'를 이끌고 있다. 개인전 «침묵 속 이야기를 그리다» (갤러리 활, 서울, 2018)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올해의 작가상 (2016)을 수상한 바 있다.

## On the Boundary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24min. 44sec, 2024

The artist ascends the red stairs. On the day after rain, he takes each step barefoot through occasional puddles without hesitation, and sometimes draws himself right up against the wall. He even puts his ear against the wall, as if listening to the sounds the building might make. The building is Kyungdong Church, a distinctive brick structure designed by architect Kim Swoo-geun, standing among the achromatic concrete buildings of the neighborhood. The scene shifts inside the church, as if crossing another boundary. A calmly backlit cross emerges in the darkness. The artist stops before it. Time passes slowly, and countless stories held in silence flow along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Moon Seung hyun works across a wide range of genres, including painting, choreography, and video. His practice explores themes such as the disabled body, its surrounding material environments and structures, and, in particular, the city and architecture. He is also active as an exhibition curator and performance director, leading project groups such as Yellow Dot Company and Seonsarang Drawing Association. Moon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exhibitions, including his solo show *To Paint Stories in Silence* (Gallery Hwal, Seoul, 2018), and was named Artist of the Year at the National Ceramics Competition for the Disabled (2016).

# 양희성

## 그리움

캔버스에 유채, 116.8×97 cm, 2020

양희성 작가는 곁을 떠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그림으로 승화했습니다. 특유의 조형 언어와 색감이 돋보이는 화면에는 인물에 대한 애틋한 기억과 슬픔, 깊은 애정의 시선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 자갈의 노래

캔버스에 유채, 130×162 cm, 2018

직관적인 구도와 세밀한 묘사로 독창적인 화면을 구성해내는 양희성의 그림엔 낯선 세상과 교류하는 작가의 시각이 담겨있다. 기억 속 장상이나 여행지에서의 장면, 상징적인 자연물을 소재로 자신이 극복한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다름과 개성이 공존하도록 하는 존중과 배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음이 닿는 순간» (스페이스 445, 서울, 2021) 외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가했다.

# Yang Heesung

## A Feeling of Longing

Oil on canvas, 116.8×91 cm, 2020

Yang Heesung channels his longing and love for his late grandfather into his painting. His works are distinguished by a unique pictorial language and color palette that evoke bittersweet memories of those close to him, along with a sense of sorrow, and deep affection.

## A Song of Pebbles

Oil on canvas, 130×162 cm, 2018

Yang Heesung's paintings, composed intuitively and rendered with meticulous detail, reflect his perspective as he engages with an unfamiliar world. Drawing on afterimages from memory, scenes from his travels, and symbolic elements of nature, he explores hi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and the respect and consideration that allow differences and individuality to coexist. He has presented his work in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Moment My Heart Touched* (Space 445, Seoul, 2021).

## 흐름의 자유 1

캔버스에 아크릴릭, 90.9×72.7 cm, 2024

## 흐름의 자유 2

캔버스에 아크릴릭, 65.1×90.9 cm, 2024

## 흐름의 자유 3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90.9 cm, 2024

## 흐름의 자유 5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90.9 cm, 2024

재활 운동으로 매일 수영장을 찾던 작가는 잔잔히 흐르는 수면과 그 위에 반사되는 빛을 사실적이고 섬세한 기법으로 담아냅니다. 캔버스 위 물결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선과 흐릿한 색채는 자연의 변하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삶의 순환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물 속의 평화로운 감각을 따라가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명상의 힘을 상상해 봅니다.

문정연은 장애와 삶의 경험을 흐름과 평온함의 상징인 물을 소재로 승화한다. 특히 재활운동을 위해 찾았던 수영장, 호수, 바다의 장면을 사실적인 묘사와 유려한 선으로 담아낸다. 그는 수영장과 강물의 흐름 같은 일상의 물 풍경을 반복적으로 탐구하며 자신만의 회화적 세계를 확장해왔다. «모든 것은 흐른다» (가온갤러리, 서울, 2024) 외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 Freedom of flow 1

Acrylic on canvas, 90.9×72.7 cm, 2024

## Freedom of flow 2

Acrylic on canvas, 65.1×90.9 cm, 2024

## Freedom of flow 3

Acrylic on canvas, 72.7×90.9 cm, 2024

## Freedom of flow 5

Acrylic on canvas, 72.7×90.9 cm, 2024

Visiting a swimming pool daily for rehabilitation, Moon Jungyeon captures the gentle flow of water and the play of light upon its surface with a realistic and delicate touch. The steady lines and diffused colors created by ripples on the canvas symbolize the enduring vitality of nature and the cycles of life and healing. Guided by the tranquil sensations evoked by water, viewers are invited to experience the meditative power that the artist seeks to convey.

Moon Jungyeon sublimates her experiences of life and disability through water, a symbol of flow and peace. She depicts scenes of swimming pools visited for rehabilitation, as well as lakes and seas, with realistic detail and exquisite linework. By repeatedly exploring everyday waterscapes such as the flowing currents of rivers and pools, she continues to expand her distinctive painterly world. She has held numerous solo exhibitions, including *Everything Flows* (Gaon Gallery, Seoul, 2024).

## 평창풍경

한지에 커피 채색, 72×110 cm, 2021

강내균 작가는 머릿속으로 어린 시절의 고향을 그리며 느낀 노스텔지어를 몽환적인 분위기의 화폭에 담아냅니다. 커피의 색깔로 표현한 노을 지는 강원도의 전원 풍경은 한국화의 다양한 채색과 모필의 기법을 실험하면서도 친근하고도 신비로운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 봄 밤

한지에 채색, 72×100 cm, 2024

이 그림은 어느 봄날, 불암산 자락 산동네의 초저녁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청 빛으로 짙게 채워진 고즈넉한 하늘과 하얀 담벼락, 그 위를 거니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모습은 고요하지만 경쾌한 시골 장면을 이룹니다. 그는 섬세한 묘사와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 속의 작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강내균은 한국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색기법을 실험하며 작업해왔다. 그의 그림에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 풍경을 중심으로 구성한 서정적인 장면 위 작가의 절제된 표현 기법은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작가는 노원문화예술회관 (2010) 외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대상 (2021)을 수상했다.

## Landscapes of Pyeongchang

Coffee and color on Hanji, 72×110 cm, 2021

Kang Nae Gyoong captures the nostalgia he feels when recalling his childhood hometown, infusing it into dreamlike atmospheres on canvas. The pastoral scenery of Gangwon-do, rendered in coffee-toned hues, appears both familiar and mysterious, while experimenting with diverse colors and brush techniques rooted in Korean painting.

## A Night in Spring

Color on Hanji, 72×100 cm, 2024

The painting depicts an early evening scene of a small mountain village at the foot of Buramsan on a spring day. The tranquil sky filled with deep ultramarine, the white wall, and the cat and dog walking on the wall create a quiet yet cheerful rural scene. With delicate depiction and warm gaze, it touches on a small hope in everyday life.

Kang Nae Gyoong continues to experiment with various coloring methods based on traditional Korean painting. His works often portray tranquil rural landscapes that evoke a sense of nostalgia. The lyrical scenes, expressed through a restrained technique, convey a calm yet deeply resonant atmosphere. He has held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cluding one at the Nowon Culture and Arts Center (2010), and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National General Arts Festiv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21).

## 차분한 오후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 바이올렛 여성미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 비는 그쳤지만

캔버스에 유채, 53×40.9 cm, 2025

밝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호박은 풋풋하거나 싱그럽게, 때로는 새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호박은 그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자, 자연과 생명의 이치를 품고 있는 아름다움의 표상입니다. '호박' 시리즈는 하나의 대상이 시간의 흐름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채롭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지은은 유화 물감의 두터운 질감과 환한 색채로 다양한 일상적 소재와 자연 속 장면을 작품에 담아낸다. 2005년 이후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온 그는 『삶을 풍요롭게 향기롭게』(세라갤러리, 천안, 2025), 『Température』(LIME ART gallery, 파리, 2019)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JW아트어워즈 우수상(2017)을 수상했다.

## Calm Afternoon

Oil on canvas, 53×40.9 cm, 2025

## Violet Feminine Beauty

Oil on canvas, 53×40.9 cm, 2025

## It Stopped Raining

Oil on canvas, 53×40.9 cm, 2025

In Baek Jieun's paintings, pumpkins appear glistening under bright sunlight or rendered fresh yet subdued. The pumpkin serves as both a mirror reflecting her inner self and a symbol of beauty that embraces the principles of nature and life. Her *Pumpkin* series reveals how a single object can transform endlessly through the passage of time and shifts in perspective.

Baek Jieun captures a wide range of everyday subjects and natural scenes in her work, making full use of the rich textures and vivid colors of oil paint. Since 2005, she has steadily continued her artistic practice, presenting numerous solo exhibitions both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Making Life Richer and More Fragrant* (Sera Gallery, Cheonan, 2025) and *Temperature* (LIME ART Gallery, Paris, 2019). She was also awarded the Excellence Award at the JW Art Awards.

## 숨을 쉬다\_호흡 1

한지에 혼합재료, 107×107 cm, 2024

## 숨을 쉬다\_호흡 2

한지에 혼합재료, 107×107 cm, 2024

작가는 병상에서 마주했던 창과 벽, 하얀 천장과 형광등, 그리고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던 링거 방울의 감각을 예술로 승화합니다. 수면 위에 떨어진 물감과 먹물이 만들어낸 둥근 곡선은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작가의 신체와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파동은 곧 흘어질 듯 흔들리지만, 그 형상은 한지 위에 고스란히 전사되어 끌어올려집니다. 이 과정은 마음 속 깊은 무의식을 풀어주는 동시에, 치유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지현은 물 위에 물감을 떨어뜨려 만들어진 파장을 이용해 찍어내는 마블링과 같은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활용해 작업한다. 경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장애로 손목에 붓을 고정시켜 어깨 힘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섬세하고 생명력 넘치는 화면을 만들어낸다. 개인전 «숨을 쉬다» (스누삼 티하우스, 서울, 2024) 등을 개최했으며, 국제장애인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 Draw one's breath 1

Mixed media on Hanji, 107×107 cm, 2024

## Draw one's breath 2

Mixed media on Hanji, 107×107 cm, 2024

Choi Ji hyun transforms the sensations she experienced while lying in a hospital bed into art: windows and walls, white ceilings and fluorescent lights, and the feeling of IV drops flowing down the back of her hand. The rounded curves created by paint and ink falling onto the surface of water are organically connected, like inhalation and exhalation, and remain in close contact with her own body. The waves seem to tremble as if about to scatter, yet their forms are lifted and transcribed onto Hanji paper. This process releases the unconscious while simultaneously serving as a means of healing.

Choi Ji hyun works with a variety of techniques and materials, including marbling, which utilizes the ripples created by dropping paint onto the surface of water. Although she paints using the strength of her shoulders, holding a brush to her wrist due to general paralysis caused by cervical spine nerve damage, she produces delicate and vibrant images.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such as *Breathe* (Snusam Tea House, Seoul, 2024) and received a special prize at the International Disabilities Art Contest.

# 한부열

## 손 잡아요

캔버스에 아크릴릭, 61×73 cm, 2025

## 안아줘요

캔버스에 아크릴릭, 46×53 cm, 2025

30cm 자로부터 시작된 선들은 반복되면서 점차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도형은 유기적으로 뒤틀리고 겹치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듭니다. 화면의 따뜻한 색감과 다양한 표면의 도형이 서로를 붙잡듯 이어지며, 단순한 형식 실험을 넘어서는 감각적 유대감이 전해집니다.

## 함께하는 친구들

캔버스에 아크릴릭, 97×117 cm, 2025

작가의 얼굴을 중심으로 주위의 다양한 존재들이 환히 웃으며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 얼굴들은 자신의 삶 속 언제나 곁에 있어 주는 이들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부열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물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각 언어를 만들어 왔다. 독학으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진솔한 언어이다. «Let's Go With HBY 2024» (노들갤러리, 서울, 2024) 외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장려상 (2023) 등을 수상했다.

# Han Booyeol

## Hand in Hand

Acrylic on canvas, 61×73 cm, 2025

## Hugs

Acrylic on canvas, 53×46 cm, 2025

Starting from a 30-centimeter ruler, Han Booyeol's lines repeat and gradually take shape, twisting and overlapping to form new images. Here, warm colors and diverse surface textures connect as if clasping one another, expressing a sense of connectedness that goes beyond formal experimentation.

## With Friends

Acrylic on canvas, 91×117 cm, 2025

Centered on the artist's own face, various figures smile brightly and mingle together. These faces express his affection for those who have stood by him throughout life.

Han Booyeol has developed his own visual language through rhythmic compositions and object-based narratives. As a self-taught artist, he regards painting as both his window to the world and his way of communication.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cluding *Let's Go with HBY 2024* (Nodeul Gallery, Seoul), and has received several awards, such as a participation prize at the Kukmin Daily Art Brut Art Contest.

## 이원형어워드 수상작가전

2025.11.5.-1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모두미술공간

## The Won Lee Award Winning Artist Exhibition

2025.11.5.-12.4.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 Modu Art Space

### 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Organized by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 참여작가

강내균, 김재호, 문승현, 문정연,  
백지은, 양희성, 최지현, 한부열

### Artists

Baek Jieun, Choi Ji hyun, Han Booyeol, Kim Jae Ho,  
Moon Jungyeon, Moon Seung Hyun, Yang Heesung,  
Kang Nae Gyoон

### 전시조성

표표건축사사무소

### Exhibition Construction

PyoPyoArchitects

### 미디어

만리아트메이커스

### Media

Manriart Makers

### 그래픽 디자인

김재성

### Graphic Design

Keum Jaeseong

### 모두미술공간 전시장운영부

총괄 백기영  
기획 및 진행 김재연, 박시내  
전시지원 및 홍보 정세영  
행정지원 하원빈  
접근성 매니저 김도영  
코디네이터 김해민

### Modu Art Space Exhibition Management Department

Supervisor Peik Kiyoung  
Exhibition Curation and Operation Kim Jaeyeon, Park Sinae  
Exhibition Support and Public Relations Jeong Seyoung  
Administrative Support Ha Wonbin  
Access Manager Kim Doyoung  
Exhibition Coordinator Kim Haemin

### Modu Art Space

5th Floor, Annex Building, Seoul Square,  
416 Hangang-daero, Jung-gu, Seoul  
04637  
02-760-9797  
[www.moduartspace.or.kr](http://www.moduartspace.or.kr)

### 모두미술공간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별관 5층  
04637  
02-760-9797  
[www.moduartspace.or.kr](http://www.moduartspace.or.kr)  
@moduartspace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모두미술공간  
MODU ART SPACE